

진흥회 활동

제 19회 정기총회 개최

— 회원사 서비스 배가의 해 —

본회는 지난 2월 10일 KOEX 4층 국제회의실에서 본회 구자학 회장, 통상산업부 노장우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회원사 대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자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행정규제 완화 10대 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하기로 하는 등 회원사를 위한 세계화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 국제기술협력 촉진과 통상협력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위한 9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본회는 먼저 「회원서비스 배가의 해」로 설정, 「회원사는 주인이다」라는 인식을 심어 대 회원사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아가기로 하는 한편, 회원사들의 애로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민원서류 작성지원 등 본회 위상을 높여 나아갈 계획이다.

특히 회원사별 서비스 담당자를 지정해 회원사의 궁금증이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는 One-Stop 서비스를 실시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96년말까지 8억원을 들여 종합전산망을 구축, 체계적이고 신속한 회원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및 관계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가칭 「전자산업 행정규제 완화위원회」를 발족, 투자·공장건설, 검사·구매 등 주요 완화업무를 대상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 전자업계의 규제적 요소를 찾아 적극 해결코자 하는 것이다.

본회는 또, 전자제품 표준규격 제정을 확대하는 등 표준화, 자동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도 수립해 놓고 있다.

전자업계의 새로운 현안 문제인 전자제품의 특별소비세 인하, 수입선 다변화 품목 축소, 부품·소재산업 육성과 대일 역조 개선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산업의 세계화 전략을 적극



추진키 위해 「WTO체제하에서의 기업경영 전략」, 「21세기의 전자산업 발전 방향과 우리의 대응」 등 각종 세미나 및 포럼을 연중 개최할 계획이다.

또 선진국 수입규제 대응, 민간 통상 협력 활동을 적극화 할 계획이며 통상마찰 및 수입규제에의 대응도 긴밀히 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 오는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부산 무역전시관에서 제1회 부산전자전을 개최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방전자산업 활성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본회는 또 전자부품연구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2,000년까지 주요 70개 품목의 수요 예측 조사를 실시 전자산업 중장기 발전방향도 수립키로 했다.

또한 본회 산하 9개 산업별 협의회도 내실있는 사업을 적극 전개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68 page 참조>

한편 이번 총회에서 비상근 임원을 선임하였는 바, 회장에 LG반도체 구자학 회장이 연임되었으며, 신규 임원으로 부회장에 LG전자 대표이사 구자홍, 이사에는 정보통신 업체를 보강하여 대우통신(주) 대표이사 박성규, LG정보통신(주) 대표이사 정장호, 삼성전관(주) 대표이사 윤중용, (주)한창 대표이사 김종석, (주)대룡정밀 대표이사 권성우, 감사에 (주)큐닉스컴퓨터 대표이사 장영목을 선임하였다.

<임원선임명단>

회 장	L G 반 도 체 (주)	구 자 학
명예회장	삼 성 전 자 (주)	강 진 구
상근부회장	본 회	이 상 원
부 회 장	(주) 남 성	윤 봉 수
부 회 장	대 덕 전 자 (주)	김 정 식
부 회 장	대 우 전 자 (주)	배 순 훈
부 회 장	동 형 전 선 (주)	박 계 동
부 회 장	삼 성 전 자 (주)	김 광 호
부 회 장	(주) 한 국 마 벨	김 순 중
부 회 장	현 대 전 자 산 업 (주)	김 주 용
부 회 장	L G 전 자 (주)	구 자 홍
업무이사	본 회	이 우 종
진흥이사	본 회	박 재 인
이 사	두 산 전 자 (주)	이 정 훈
이 사	(주) 삼 보 컴 퓨 터	이 정 식
이 사	삼 성 전 기 (주)	이 형 도
이 사	삼 영 전 자 공 업 (주)	변 동 준
이 사	삼 화 콘 텐 서 공 업 (주)	김 태 화
이 사	아 남 산 업 (주)	황 인 길
이 사	(주) S K C	안 시 환
이 사	오 리 온 전 기 (주)	엄 길 용
이 사	(주) 오 토 닉 스	박 환 기
이 사	(주) 인 켈	최 석 한
이 사	제 일 정 밀 공 업 (주)	김 선 중
이 사	한 국 전 자 (주)	곽 정 소
이 사	한 국 컴 퓨 터 (주)	홍 승 채
이 사	홍 창 물 산 (주)	손 정 수
이 사	대 아 리 드 선 (주)	황 성 박
이 사	대 우 통 신 (주)	박 성 규
이 사	L G 정 보 통 신 (주)	정 장 호
이 사	삼 성 전 관 (주)	윤 중 용
이 사	(주) 한 창	김 종 석
이 사	(주) 대 룡 정 밀	권 성 우
감 사	태 일 정 밀 (주)	정 강 환
감 사	(주) 큐 닉 스 컴 퓨 터	장 영 목

※ 고딕부분은 신임 임원임.



'95 전자부품 구매계획 세미나 개최

본회는 지난 2월 8일 KOEX 4층 국제회의실에서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국산 부품 판매 활성화 등 비전 제시를 위해 95년도 전자부품 구매 계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세트업체의 구매 관계자와 부품업체 관계자 등 200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루었다.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아남전자, 한 국전자 등 주요 5개 세트업체 구매팀장들이 각사의 구매전략과 경영방침을 소개하고, 95년도 주요 품목별 생산계획과 부품계획 설명해 세트업체의 금년 구매물량과 국산화 가능 품목 및 현재 수입가, 도입가 등을 공개 부품업체 참석자에게 지대한 관심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는 5개사의 올 구매계획분이 총 8조 7,538억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조기국산화 대상품목도 다이오드, 코넥터 등 모두 16개 품목에 달해 수요량이 3억 4,200만 개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품목이 조기 국산화될 경우 예상되는 수입대체는 2,86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품목별 구매 계획을 보면 컬러TV가 2조 1,622억원으로 규모가 제일 크다. 다음이 VCR이 1조 2,313억을 차지하고 있고, 모니터가 6,600억원, 냉장고 6,100억원, 에어컨

2,552억원 순으로 이어진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3조 4,297억원, LG전자 2조 9,094억원, 대우전자 1조 7,456억원, 현대전자 3,500억원, 아남전자 2,117억원 한 국전자가 1,067억원을 각각 계획하고 있다.

한편 본회는 95년도에 국산화된 신개발 전자 부품 및 국산화 대상 품목에 대한 전시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CATV기자재 공급대책반 구성

본회는 지난 2월 14일 대회의실에서 CATV 수급대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종합유선방송에 있어 국산CATV기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CATV기자재 수급 대책반을 구성했다.

대책반장은 이상원 본회 상근부회장이 선임되었고, 통상산업부와 공보처 등 관계부처와 종합유선방송협회와 지역방송국사업자(SO), 전자부품연구소와 컨버터 등 기자재 공급업자, 전송망사업자인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방송이 당초의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각사업자간에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여 질 좋은 방송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가장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자는 데 합의하고 이를 위해 서로간에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하는 등 최대한 협력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온 전송망과 컨버터 등 기자재의 신뢰성 문제와 이로 인한 컨버터 설치 지연, 분배망상의 문제 등을 정확히 파악, 해결하느로서 조속한 보급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키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 망사업



자와 컨버터 제조업체 그리고 SO 등이 함께 종합점검반을 구성하여 테스트에 들어 가기로 했다.

즉 점검반은 쌍방향방송이 가능한 SO를 우선적으로 종합테스트를 철저히 실시하여 방송국부터 가입자에 이르기까지 어느곳이 문제인가를 정확히 밝혀내므로써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모델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각자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것이다.

점검반은 종합유선방송협회가 주관이 되어 운영해 나가기로 했으며, 점검의 실시 시기는 망사업자인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이 쌍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SO 명단을 유선방송협회에 보내면 협회가 일정을 잡아 시작하며, 양방향테스트가 가능하지 않은 곳은 망사업자가 이를 계속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책반은 전자공업진흥회내에 사무국을 두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CATV 본방송시 시작되는 3월까지는 매주 1회씩 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일일 점검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본회 이상원 상근부회장 영국 하원의원단 예방

본회 이상원 상근부회장은 지난 2월 16일 영국 하원의원 Sir James Kilfedder 등 8명의

하원의원단 일행의 방문을 받고 환담, 한국전자산업계의 영국 투자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환담에서 영국 하원의원단 측은 한국전자산업의 세계화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보다 많은 한국 기업이 영국 특히 북아일랜드 지역에 투자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본회 구자학 회장, 95 무역인 대상 수상

본회 구자학 회장(LG반도체 회장)은 지난 2월 16일 KOEX 4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무역학회가 선정한 「95무역인대상」을 수상했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산학협동에 이바지한 공로로 수상했다.

구회장은 지난 91년 4월 국내 최초로 반도체 관련 사내 직업훈련원을 LG반도체 청주공장에 설립한 후 이어 2년기간의 사내기술대학도 개설하고 청주 주성전문대학, 구미공장과 구미전문대학간에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술교육 및 산학 활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 회사 매출액의 14%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 차세대 반도체인 256메가 D램을 비롯, ASIC(주문형 반도체) MICRO제품에 이르기까지 각 영역에 걸친 연구개발로 D램 분야에서

세계 6위의 업체로 부상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또 독특한 리더쉽으로 최고의 마케팅 능력을 확보, 수출증대를 도모했고 동남아 시장 중국 시장에 판매거점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시장 다변화와 대일 무역역조의 개선에도 노력했다.

구회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생산기술력 확보를 위해 생산기술센터와 생산기술대학을 설치했으며 품질관리 활성화 노력을 전개, 세계 최초의 무결점 ISO 9001 인증서를 획득했다.

시상식에는 황낙주 국회의장,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 박용정 한국경제신문 사장, 박필수 한국외대 교수(전 상공자원부장관), 박수환 LG상사 사장 윤희로 단국대 총장, 김성진 숭실대 총장, 이순우 대한상사중재원장 등 국내, 정계, 재계, 학계, 언론계인사 250여명이 참석했다.



'94년 공업발전기금 지원, 4,527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

본회는 지난 94년 공업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과제중 55개 품목이 개발 완료됨으로써 약 4,527만 5,000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함께 95년 1억 844만 3,000달러의 수

입대체 및 1,772만 2,000달러의 수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55개 중소기업·중견전자업체가 총 183억 7,600만원의 연구개발비(공업발전기금 92억 7,800만원 지원 포함)를 들여 이번에 개발 완료한 제품은 화상처리에 의한 검사장치 시스템, 근거리통신망용 게이트웨이/서버 장치 등 전자기기 31개 품목과, CATV용 RF 코넥터, 고감도 적외선 센서 등 전자부품 및 소재 24개 품목이다.

한편 본회는 공발기금 과제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개발된 과제에 대한 제품 및 부품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전자부품·소재 산업 종합발전방안 회의 개최

본회는 지난 2월 27일 본회 회의실에서 통상산업부, 전자부품기술연구소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부품 및 소재 산업 종합발전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추진일정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단체,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2차 실무회의를 3월초에 개최기로 하고 전자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2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실무작업반을 구성기로 하였다.

이를위해 워크숍 개최, 국내산업의 실태분석과 추이, 관련산업의 세계적 동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한·중 HDTV 기술협력 회의 개최

본회는 지난 2월 3일 본회 회의실에서 서울대 이충웅 교수 등 6명이 참석, 한·중 HDTV 기술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회의를 개최하고, 한·중 기술협력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표준방식을 유도토록하고 HDTV의 통신시스템에 대한 ASIC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3월 Working Group 회의 개최를 위해 중국의 HDTV 기술 개발 동향, 선진국의 HDTV 표준규격 동향 등을 주요 의제로 채택하기로 했다.

전자부품수급업체간 국산화 추진실적 조사

본회는 전자부품 및 소재산업육성을 위하여 LG전자 등 5개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94년 국산화 추진실적 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수급기업간 전자부품 공동개발 및 부품업체 단독개발을 조사하여 상호구매 확대, 중복개발방지 및 대일무역역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의 국산화 등 2억 5,579만 4,000달러의 수입대체효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대일지역에서 1억 7,968만 9,000달러의 대체효과를 거둬 대일무역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조사에서는 반도체와 반도체장비에 있어서의 국산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전자렌지, VTR, Audio 등 가전제품에서의 국산화 규격추진 실적이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으로는 중소부품업체의 부품개발시 모기업지원액이 '93년대비 3배이상 증가하였음에도 4억 1,650만원에 그쳤고, 개발품목수에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보다 활발한 국산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요 전자업체의 중소부품 개발업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본회에서는 국산화품목의 홍보 및 수급업체간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한 중복개발방지 및 개발부품의 판매 통로를 마련키 위해 신개발 부품 설명회 및 국산화 추진 대상품목

전시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가전산업협의회

본 회는 지난 2월 17일 본회 회의실에서 가전제품 재활용 사전 평가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종 지정제품(TV, 냉장고, 세탁기)에 대한 평가 심의를 했다.

동 협의회는 지난 2월 23일 본회 회의실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전자업체의 애로사항을 정리 건의키로 했다.

H A 표준분과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본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중인 검증 과제를 3월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폐 가전제품 회수·처리 위탁사업 관련 회의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위탁사업 방향 점검과 폐냉장고 회수·처리 비용 지원과 관련 논의 했다.

전자부품산업협의회

동 협의회 HPC세라믹 저항기 표준화 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본회 회의실에서 삼성전기(주) 최대성 부장 등 4명이 참석, HPC 세라믹 저항기 표준화 규격을 수립했다.

진 공청소기 표준화 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LG전자 창원공장에서 대우전자(주) 이진곤 선임연구원 등 5명이 참석, 진공청소기 내구성 시험방법 표준화 규격을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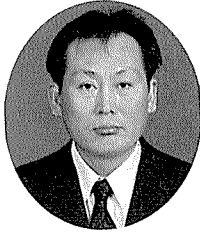
기고

극선관 등록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 부터 16일까지 2일간 구미 오리온전기 (주) 회의실에서 LG전자 안창식 부장 등 9명이 참석 회의를 개최하고 CRT와 X-Ray 관련

세미나 개최와 오는 4월 일본 EDEREC(전자 디바이스 등록센터)와의 공동회의 개최, IEC TC-39회의 참석과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신규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주)진성전자



대표: 하 용 일
주소: 대구 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11-6
전화번호: 053) 767-0151
자본금: 1억 5,000만원
설립일자: 1992. 3. 31
종업원수: 21명
주생산품목: Channel Amplifier, SA TV
Amplifier, Wide Band Amplifier,
Signal Processor, TV Modulator, Active
Combiner, Line Amplifier 등

(주)엔.티.케이



대표: 정 찬 익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KOEX 빌딩 2F-07
전화번호: 02) 551-6106
자본금: 10억원
설립일자: 1990. 8. 7
종업원수: 27명
주생산품목: 노트북 컴퓨터, PDA, SW 등